

멕시코 좌파정당의 지형 변화: 민주혁명당의 분열과 모레나의 등장*

김기현**

단독/선문대학교

Kim, Ki-Hyun (2018), "The Changes of Mexican Leftist Parties' Terrain: The Split of the Party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nd the Emergence of Morena"

ABSTRACT

For the first time in the political history of Mexico, a leftist party has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8.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the split and the recreation of leftist parties in Mexico. Since the fall of the PRI hegemon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88, the Mexican political circle has established a three-party system consisting of the right-wing PAN, the centrist PRI, and the leftist PRD of which López Obrador was presidential candidate twice after leaving the PRI. Nevertheless, he won the 2018 election as the candidate of Morena, the new leftist party which he created after leaving the PRD. This paper strive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y did López Obrador leave the PRD and create the new party, Morena? Why has this split the PRD which previously served as the integrated leftist party?

Key Words: Mexico, political parties, López Obrador, PRD, Morena

서론

2018년 7월 1일 실시된 멕시코 총선에서 멕시코 정치사에서는 처음으로 좌파정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가 승리했다. 물론 지금까지 제도혁명당의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2A3054789).

** Ki-Hyun Kim is a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Foreign Languages and Undeclared Majors at Sunmoon University, Korea (drkhkim@sunmoon.ac.kr).

(Adolfo López Mateos),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ía)와 같은 대통령들의 정부 정책을 보면 최근 좌파정부들의 정책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제도혁명당 소속이었고, 다계급연합 정당인 제도혁명당을 좌파정당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

멕시코는 2000년, 제도혁명당 71년 장기집권의 막을 내렸다. 그 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00년대 좌파 붐이 일어났지만 멕시코에서는 좌파정당이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전반적으로 좌파정당이 쇠퇴하고 우파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멕시코에서는 예외적으로 좌파정당이 승리를 한 것이다.

멕시코에서 좌파정당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제도혁명당 헤게모니 지배 시절에 멕시코에서 진보의 이니셔티브는 제도혁명당이 흡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당들은 군소 정당으로서 생명을 유지해왔다. 명맥만 유지하던 멕시코 좌파정당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온 것은 제도혁명당 탈당파들과의 연합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좌파 통합 정당인 민주혁명당이다. 민주혁명당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세력들이 연합한 결과 그의 좌파 정체성 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민주혁명당은 우파의 국민행동당, 중도우파의 제도혁명당과 함께 멕시코 정치를 대표하는 3당 체제의 한 축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민주혁명당은 이제 더 이상 멕시코 좌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 좌파의 유력한 후보인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민주혁명당을 탈당해 모레나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 반면 민주혁명당은 자신의 대선 후보도 내지도 못하고 우파의 국민행동당과 연합해 우파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분열을 감수하고 통합좌파정당인 민주혁명당을 탈당해 현재의 모레나당을 설립하게 되었는가?

멕시코 좌파에 대한 연구는 사실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연구에서 멕시코의 사례는 흔히 빠져있다. 2000년대 좌파정부 붐 시기에 멕시코의 좌파는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멕시코 예외주의’(Mexican exceptionalism)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 멕시코 좌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멕시코에서 왜 좌파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멕시코 좌파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 중 하나인 로만과 벨라스코 (Roman and Velasco 2013)의 논문도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그 요인으로 여전히 억압적인 국가, 제한적 선거 경쟁, 선거의 불법성 등 정치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내부적으로 좌파정당의 분열적 성격을 지적한다.

멕시코의 좌파는 크게 선거좌파와 탈 제도권 좌파로 나누어진다. 탈 제도권 좌파에는 사파티스타 운동과 오아하카 민중의회(Asamblea Popular de los Pueblos de Oaxaca: APPO) 등이 있고, 제도권 좌파 즉 선거좌파에는 민주혁명당이 있었다. 좌파가 선거좌파와 제도권 좌파로 분열되어 서로 반목한 것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¹ 제도권 좌파의 통합 정당으로 탄생한 민주혁명당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도 좌파 집권 실패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앞서 언급한 로만과 벨라스코의 논문은 이러한 분열상을 표면적으로 보여줄 뿐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 좌파의 그러한 분열상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²

이 글에서는 우선 민주혁명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그의 설립 초기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모레나 당의 설립 배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1988년 헤게모니 정당인 제도혁명당의 분열 이후 멕시코 정치에서 새로 부각된 좌파정당들의 지형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모레나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RD의 분열 요인

좌파 통합정당으로 탄생한 민주혁명당은 끊임없는 내부 분열에 시달렸다. 이러한 내부 분열의 가장 근본적 요인으로는 태생적 이질성으로 인한 내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클리엔텔리즘 기반의 분파주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1 예를 들어 2006년 대선에서 사파티스타의 선거 불참운동은 박빙의 승부에서 좌파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패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 논문 제출을 앞둔 시점(2018년 7월 1일)에 멕시코 좌파 신생 정당 모레나의 대통령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압도적 표차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그의 승리는 2017년 중반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되기 시작했지만 그런 압도적 승리는 기대 이상이였다. 따라서 이제 멕시코 좌파정당에 대한 연구도 멕시코의 여전히 비민주적인 정치시스템과 좌파의 분열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좌파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는 단지 민주혁명당의 분열 상황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모레나라는 신생 정당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 다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서는 과정까지만 분석한다.

이러한 내부적 차이와 분파주의가 필연적으로 당의 분열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민주혁명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러한 차이와 분파주의를 제도적 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당내 제도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로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존했던 민주혁명당의 경우 멕시코의 다른 정당들에 비해 특히 이런 당내 제도화가 부족했다. 이 장에서는 바로 민주혁명당의 이런 세 가지 분열 요인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내부 이데올로기 차이:

PRI 탈당파의 민중민족주의 vs. 좌파파의 국제사회주의

1988년 이전 제도혁명당(이하 PRI)의 헤게모니 지배시기에 멕시코의 좌파정당들로는 좌파정당 연합체인 멕시코 사회주의당(Partido Mexicano Socialista, 이하 PMS)과 트로츠키파로 구성된 노동자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 los Trabajadores, 이하 PRT)이 있었다. 1988년 대선 이후 PRI 탈당파와 이들 좌파정당들이 연합하여 민주혁명당(이하 PRD)이 탄생했다.

1988년 대선에서 PRI 탈당파와 민족민주연합(Frente Democrático Nacional, 이하 FDN)을 형성해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Cuauhtémoc Cárdenas)의 대선을 지원했던 PRI 주변 정당들인 민족재건 카르테나스파 연합당(Partido del Frente Cardenista de Reconstrucción Nacional, 이하 PFCRN)³, 진정한 멕시코 혁명당(Partido Auténtico de la Revolución Mexicana, 이하 PARM)⁴, 사회주의 민중당(Partido Popular Socialista, 이하 PPS)⁵은 대선 후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의 좌파정당과의 연합 제안을 거부했다. 독립적으로 남은 이들 정당은 1994년 선거 이후 지지를 부족으로 대부분 정당 등록에 실패하고 소멸되었다.

PRI 탈당파와 기존 좌파정당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PRD는 설립 초기부터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가지기 어려웠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성향의 PRI 탈당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사회운동세력, 전직 게릴라 전사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다. 어쨌든 당시 PRD 내부의 이데올로기 차이는 크게 보면 멕시코혁명의 민족적,

3 사회주의 노동자당(Partido Socialista de los Trabajadores, 이하 PST)이 1987년 국제사회주의 의에서 멕시코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당명을 PFCRN으로 변경했다.

4 PRI에서 소외된 혁명군 출신들로 이루어진 정당이다.

5 혁명좌파 노조운동을 이끌었던 비센테 롬바르도 톨레다노가 설립한 정당이다.

혁명적, 진보적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PRI 탈당파와 국제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방향을 추구하는 다양한 좌파 세력들로 나누어진다.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포르피리오 무뇨스 레도(Porfirio Muñoz Ledo), 이피헤니아 마르티네스 이 에르난데스(Ifigenia Martínez y Hernández)가 주축인 PRI 탈당파는 멕시코혁명 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족-민중주의(nacional-populismo)를 기치로 삼고자 한 반면, PRI 출신이 아닌 기존 좌파정당 출신자들은 국제적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다.

PRD에 소속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PRI 탈당파들의 기본적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국가개입주의를 멕시코 경제발전의 진정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PRI 탈당파 내부에서도 로페스 오브라도르 중심의 급진파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부문의 지지확대를 추구했다면, 또 다른 PRI 탈당파 무뇨스 레도 중심의 사회민주주의파는 중산층의 지지기반 확대를 추구했다.

이러한 당내 이데올로기적 다양성 때문에 PRD는 자신의 이데올로기 정체성을 좌파정당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좌파로 규정했지만 부분적으로 좌파로 규정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도 존재했다. 특히 PRI 탈당파의 일부가 PRD를 좌파정당으로 규정하는데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들은 PRD가 좌파의 전통보다는 멕시코혁명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PRD는 당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파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1993-1996년 사이 PRD의 당대표를 역임했고, 쿠아우테묵과 함께 2000년 대선의 당내 유력한 후보로 간주되던 PRI 탈당파 온건세력의 리더 무뇨스 레도는 1998년에 개최된 제 IV차 당 대회에서 당이 이데올로기적 모호성을 탈피해 확고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PRD의 당대표는 PRI 탈당파 급진세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였고, 사무총장은 구좌파 출신의 헤수스 오르테가(Jesús Ortega)였다. 당 지도부의 이런 이데올로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논의의 결과 PRD는 당 설립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당 정관에 스스로를 ‘좌파정당’이라고 명시할 수 있었다(Martínez González 2005, 78).

물론 어떤 형태의 좌파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PMS 출신의 헤수스 오르테가는 PRD의 좌파 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적 국가, 자유, 정의, 합법성, 복지를 추구하는 새롭고, 근대화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좌파정당”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PRD는 여전히 좌파정당으로서 명확한 정체성과 정책 대안을 확립하지 못했다. 당시 PRI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좌파정당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García Ponce 2005, 62).

PRD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치적 기원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이질성으로 인한 당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은 결국 당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클리엔텔리즘(clientelismo) 기반의 분파주의 확산

PRD가 자신을 ‘좌파정당’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데올로기 차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1996년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당대표가 된 이후 선거에서의 승리를 당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외연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의 정체성은 오히려 보다 더 복잡해졌다. 당이 좌파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안에도 PRD의 지도부는 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들이었다. 특히 무뇨스 레도의 뒤를 이어 1996년에 PRD의 대표가 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당내 급진파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까지 그의 임기 동안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데올로기적 일체감이 없더라도 다양한 세력들을 과감히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러닝메이트로서 당 사무총장이 되고, 1998년 당 대회에서 당의 좌파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헤수스 오르테가도 마찬가지로 당 프로그램과 본질적인 것만 공유한다면 누구와도 동맹을 맺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1997년 선거를 앞두고 PRD는 외부인사 영입 과정에서 당 노선에의 적합성 평가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당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각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PRI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물론 PRD에 새로 가입한 이들 PRI 출신 인사들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찾아서 PRI를 탈당하고 당적을 옮긴 것은 아니었다. 멕시코에서 정당을 이전하는 사람들 중 이전하기 전 정당에서 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은 많지 않다. 멕시코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역 차원의 시의원, 주의원, 지구당 당직에서 시작해서 시장, 주정부 각료, 연방하원의원, 연방정부 고위직 관료를 거쳐 주지사,

상원의원, 연방정부 각료, 당 대표나 당 사무총장에 이른다. 재선 금지라는 멕시코혁명의 정신에 따라 대부분의 선출직과 공직에서 연임이 불가능했던⁶ 멕시코의 정치인들은 매 선거를 앞두고(하원의원 임기 3년, 대통령과 상원의원 임기 6년) 한 계단씩 올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최소한 다른 영역으로 수평이동이라도 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자기 당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한 야망 있는 정치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당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들은 자신이 다음 선거에서 위 단계 선출직 후보가 될지 안 될지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당 이전을 고려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정당 이전의 동기는 이데올로기나 정책적 갈등이 아니라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다. 심지어 우파정당으로 분류되는 PAN에서 좌파정당으로 분류되는 PRD로,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인 정당으로 이전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연방주의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주 단위에서 정당 이전이 더 흔히 발생한다. 주 단위에서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 리더는 지역구 후보 선출에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 당적 이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Kerevel 2014, 95-97).

특히 가장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PRI의 경우 이러한 경쟁이 보다 치열하다. 따라서 PRI의 일당 헤게모니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3당 경쟁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PRI가 아닌 다른 당에서도 선거 승리의 가능성을 보게 된 많은 정치인들이 다른 당으로의 이적을 단행했다. 케리블(Kerevel)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6년까지 네 번의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중 당적을 옮긴 사람은 총 355명(한 임기 500명 씩 총 2000명 중 약 18%)이었으며, 이들이

6 2014에 개정된 선거법은 2018년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부터 정당 소속 변경이 없을 시 상원의원은 한 번(12년), 하원의원은 네 번(12년)까지 연임을 허용했다. 시의원, 주의원, 시장인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선출된 사람들도 2018년 선거에서부터 연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연임 기간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네 번까지(12년) 허용되었으나, 일부 주는 2번(6년)까지만 허용되었다(Político.mx 2017).

7 멕시코에서 주요 3당 외에 군소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례대표제 때문이지만 그와 함께 주요 3당에서의 빈번한 탈당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소정당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주요 3당에서 탈당해 다른 주요 3당으로 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들 군소정당들은 어떤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기보다는 주요 3당의 후보선출 등에서 밀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당적을 옮긴 이유는 대부분이 후보선출 문제였으며 그 다음이 당 내분 문제였다. 정책이나 이데올로기 차이를 탈당의 원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이데올로기 문제로 당적을 변경한 사람은 1997-2000년 임기 하원의원 중에서는 3명, 2000-2003년에는 0명, 2003년-2006년에는 1명, 2006년-2009년에는 3명에 불과하다)(Kerevel 2014, 108).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PRD는 PRI의 클리엔텔리즘⁸과 재선금지 원칙으로 인한 후보선출 문제와 당내 분열에 따른 당원들의 탈당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었다.⁹ 케리블에 따르면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선거에서 당선된 PRD 하원의원(각각 121명, 53명, 97명, 127명) 중 최소 52명(약 13%)이 전 PRI 소속이다(Kerevel 2014, 100).

2000년 정권 교체 이후 PAN이나 PRD는 새로운 정치를 발전시키기보다 과거 PRI의 클리엔텔리즘 정치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일부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지는 PAN과 PRD는 진정한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 PRI의 유력 인사들을 영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전통적 네트워크와 정치행태들(클리엔텔리즘, 선거부정, 지역 카시케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받아들였다(Olvera 2010, 88).

PRD는 심지어 과거 PRI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살리나스파였던 사람들조차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 받아들였다. 이런 전략은 2000년 대선 패배 이후 쿠아우테мок 카르테나스가 2선으로 후퇴하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실제 PRD는 멕시코시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대부분 PRI 탈당파들로 구성되었다. 그로 인해 PRD는 내부적 갈등이 보다 더 심화되었고 좌파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도 더욱 희미해졌다. 결국 PRD는 좌파정당에서 점차 PRI와 같은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¹⁰(Klesner 2005, 132-133).

8 클리엔텔리즘(clientelismo)은 정치적 영향력 있는 파트론(Patrón)이 그를 지지하는 클리엔테(client)들에게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공적 자리나 이권을 제공하는 정치적 행태를 말한다. 클리엔텔리즘은 피후견인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정확하고 익숙한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클리엔텔리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9 1998년과 1999년 주지사 선거에서 PRD는 자신들이 취약한 북부지역의 사카테카스,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그리고 툴라스칼라에서 PRI 탈당파를 영입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RI 탈당파의 영입이 항상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98년 푸에블라와 베라크루스 주지사 선거에서는 PRI 탈당파를 후보로 선정한 것이 PRD 내부의 분열을 가져와 득표율이 각각 10.87%, 17.9%로 전년도 총선에서의 PRD의 득표율에 비해 각각 거의 10% 정도 하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PRD는 당내 다양한 세력들 간의 선출직 후보 자리를 놓고 벌어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공개적 예비선거(open primary) 방식을 채택했다. 투표에 참여한 이질적 유권자들에 의해 당 후보가 결정되다보니 당 후보들의 이데올로기는 유권자들에게 반응하여 더 이질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선출된 의원들의 의회에서의 응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2000년 대선에서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가 세 번째 도전에 실패하자 그의 카리스마는 감소했다. 그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PRD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고,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시 시장을 지내는 동안 빈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 선심정책을 펼치는데 집중했다. ‘빈곤층 우선’의 구호를 내세우는 오브라도르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라기보다는 과거 PRI와 같이 다계급연합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었다. 따라서 2006년 대선 후보로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확고한 원칙 없이 그를 따르겠다는 모든 사람들을 당원 혹은 선거연합 세력으로 받아들였다.

그로 인해 1998년 당 대회에서 규정된 ‘좌파정당’으로서 PRD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은 사실상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다. 당시 PRD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PRD도 PRI와 마찬가지로 클리엔텔리즘으로 조직된 다양한 정치이익집단 세력들의 느슨한 연합에 불과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의사와 당내 토론보다는 선거 전략과 여론지도가 우선시되었다. 확고한 정책 프로그램 없이 이것저것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한 정책들만 끌어 모았으며, 사회변화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주로 당시 여당인 PAN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했다. 이를 두고 PRD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라스콘(Rascón 2012)은 2006년 대선 무렵 PRD는 이제 더 이상 좌파정당이 아니라 과거 PRI와 마찬가지로 ‘국민통합당’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10 멕시코 정당 시스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로사스(Rosas 2005)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12개국 중 멕시코와 칠레의 정당들이 다른 나라의 정당들에 비해 보다 더 정책정당(programmatic party)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칸투와 데스포사토(Cantú and Desposato 2012)는 PRI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애매모호한 클리엔텔리즘 기반 정당인 반면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PRD와 PAN은 선거전략 상 PRI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N과 PRD도 다양한 인물들의 무차별적 영입으로 인해 포괄정당에 가까워졌다. 특히 주요 3당의 이데올로기는 전국적 수준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당적 이전이 빈번한 지방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정책에 따른 투표를 하는데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당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나아가 지방 수준에서 이러한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상실은 결국 중앙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PRD의 좌파 정체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PRD에도 클리엔텔리즘에 기반을 둔 분파주의가 심화되었다. PRD의 분열 요인으로 앞서 살펴본 당내 이데올로기 차이는 당직이나 국가선출직 등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분파간의 내부 투쟁에 비하면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었다. PRD의 각 분파들은 당의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리더(각 분파의 파트론)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나 정책보다는 당직과 선출직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더 집중했다. 당의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그로 인해 중앙과 지방 단위에서 거의 매년 실시되는 빈번한 선거에서 후보직과 주요 당직 자리를 놓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당내 파벌 간의 투쟁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이는 PRD 내부 갈등의 핵심이 되었다.

당시 PRD의 분파는 크게 보아 구좌파정당 출신들의 분파, 지역 유력 정치인 중심의 분파(멕시코시는 구역별로 분파가 나누어지기도 한다), 교직원 노조나 사회운동 세력 중심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각의 당내 세력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07년 PRD 10차 임시 당 대회 분파별 대의원 수와 비중

분 파	대의원 수 (명)	비중 (%)
NI	543	42.32
ADN	222	17.30
IDN	103	8.03
FNS	93	7.25
다양한 지역 그룹들	62	4.83
Movimiento Cívico(시민운동, MC)	55	4.29
Izquierda Social(사회적 좌파, IS)	47	3.67
Marcelo Ebrard 파(MEC)	45	3.51
Movimiento por la Democracia(민주주의 운동)	44	3.43
무 분파 세력	42	3.27
Unidad y Renovación(통합과 개혁, UNyR)	15	1.17
미초아칸 분파(Morón)	8	0.62
Red de Izquierda Revolucionaria(혁명좌파 네트워크, REDIR)	4	0.31
총	1,283	100

자료: Mossige 2013, p. 49.

PRD 내에서 최대 분파인 신좌파(Nueva Izquierda, 이하 NI)는 PRD 설립 이전 좌파통합정당인 PMS 출신의 헤수스 오르테가(Jesús Ortega)와 멕시코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인 '9월23일 공산주의 동맹'(Liga Comunista 23 de Septiembre, 이하 LC)의 헤수스 삼브라노(Jesús Zambrano) 등 PRD 설립 멤버 중 구좌파정당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 상원의장을 지내고 한국외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기도 한 미겔 바르보아(Miguel Barboa)도 이 분파에 소속되어 있다. 이 분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흔히 '로스 추초스'(Los Chuchos: 강아지들)라 불린다.

민족민주대안(Alternativa Democrática Nacional, 이하 ADN)과 신태양포럼(Foro Nuevo Sol, 이하 FNS)은 사카테카스, 미초아칸, 멕시코주 등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 중심의 분파이다. 그 중 ADN은 주로 멕시코주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된 분파로서 NI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68년 학생운동 이후 설립된 멕시코 노동자당(Partido Mexicano de los Trabajadores, 이하 PMI) 출신으로 PMS와 PRD의 설립 멤버로 참여했고, 상원의원을 지낸 미겔 바우티스타(Miguel Bautista)가 분파의 리더이다.

한때 당내 최대 그룹이었던 FNS는 멕시코시나 멕시코주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유력 정치인들로 형성된 분파이다. 사카테카스 주의 주지사를 지낸 아말리아 가르시아(Amalia García)가 리더이고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때 당내 최대 분파였으나 계파의 분열로 당내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민족민주좌파(Izquierda Democrática Nacional, 이하 IDN)는 멕시코시 메트로폴리탄 자치대학(UAM)의 교수이자 대학노조 지도자였던 레네 베하라노(René Bejarano)가 리더인 그룹으로 주로 멕시코시의 교직원 노조나 사회운동 세력 출신 중심의 분파이다. 베하라노의 부인 돌로레스 파디에르나(Dolores Padierna)는 PRD 사무총장을 지내고 현재 상원의원이다. IDN은 앞의 NI, ADN, FNS와 달리 정당 출신의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노조와 같은 사회운동 세력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며, PRD 내에서 대표적인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계 분파이기도하다. 또 다른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계 분파인 UNyR 또한 전 대학노조, 택시기사 조직, 거주지 운동가 등 사회운동 세력 중심의 분파이다. 따라서 PRD의 분파는 크게 보아 대체적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견제하는 제도권 정치인 중심의 분파와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가까운 사회운동 중심의 분파로 나뉜다. 이러한 분파 간의 견해 차이가 후에 PRD 분열의 근본적 요인이 된다.

카리스마 리더십 의존과 제도화 부족

분파주의는 PRD 분열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PRD 외에 다른 멕시코의 주요 정당들에서도 대부분 그 정도의 내부 분파주의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부 분파주의가 있다고 해서 당이 필연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분파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당내 제도의 공고화 수준이다.

PRD의 분파주의 문제가 악화된 것은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지도자들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당의 제도화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PRD는 물론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들의 대중적 지지도와 득표율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개인적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당의 자율적 발전과 제도화에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들 카리스마 리더들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라기보다 당내 엘리트들이 이들 카리스마 리더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이다.

PAN과 PRI와 달리 PRD는 당의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PRD는 창당 때부터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당의 제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의 결정들이 당원들이 인정하는 당규에 따라 제도적 과정을 통해 행해지기보다 각 분파 리더들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비공식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물론 대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카리스마 리더에게 있었다(Borjas Benavente 2003).

그로 인해 다양한 분파들로 이루어진 PRD는 설립 초기부터 당내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당 설립 후 일 년 만인 1989년 5월 제 1차 당 대회에서부터 PRD는 당 지도부 형성을 놓고 각 지역 리더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때마다 PRD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와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의 권위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했다. PRD의 구성원들은 각각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라사로 카르테나스의 업적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라사로 카르테나스의 권위를 유산 받은 그의 아들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는 PRD 내부 갈등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했다. 다양한 세력들 간에 주요 당직, 선출직 후보, 자금 배분 등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의 구성원들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의 결정을 최종 판결처럼 존중했다(García

Ponce 2005, 63).

한 명의 카리스마적 리더에 집중된 권위는 당의 통합에 용이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의 제도화를 막고 분열로 가는 요인이 되었다. 당의 결정이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한 명의 리더에 의존하는 정당에서 그 리더가 당의 영원한 대선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그것은 분열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재선 금지, 유효한 선거’라는 멕시코혁명의 정신이 국가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그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일지라도 일인의 지속적 대선 도전 시도는 구성원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PRI가 70년 이상 큰 내분 없이 정권을 유지한 것도 다양한 수준에서 그러한 재선 혹은 재도전 불가 원칙이 제도적으로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는 1988년, 1994년 두 번의 대선 도전에 실패한 이후에도 1997년 멕시코시 시장 후보로 나섰고, 2000년에는 다시 대선 후보가 되고자 했다. 이러한 처사는 불가피하게 당의 분열을 가져왔다. 1990년대 후반까지 PRD의 주류였던 PRI 탈당파는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파와 포리피리오 무뇨스 레도파로 나누어졌다. 무뇨스 레도는 PRI의 당대표까지 지낸 인물로 PRI 탈당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그 전에도 정책노선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1994년 대선 후보였던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가 1997년 직선제로 전환된 멕시코시 시장 후보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무뇨스 레도는 탈당을 결심한다. 그는 2000년 대선에서 PARM의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가 선거전 막바지에 후보직을 사임하고 체제변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PAN당의 폭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2000년 대선에서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가 낮은 지지율로 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당 대표였던 시기의 PRD 지도부는 NI 분파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분파들에 의해 잘 받아들여졌다. 특히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당 대표가 된 초기에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와 달리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 다른 분파들과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다양한 분파들 간의 통합이 가능했다. 에스피노사와 나바레테(Espinoza Toledo and Navarrete Vela)는 1996-2000년 사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이러한 리더십을 카르테나스의 ‘지배적 카리스마’(carismático-dominante)와 비교해 ‘통합적 카리스마’(carismático-integrador) 리더십이라 정의한다(Espinoza Toledo and Navarrete Vela 2016, 91-93).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00년 멕시코시 시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각 분파세력들에게 시정부의 장관직을 적절히 배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분파 간 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분파들을 통합하고 PRD를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도 당 조직의 제도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2006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 세력의 최대 분파인 NI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자 PRD에 내재되어있던 분파주의가 보다 심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 선거 결과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불복종 운동은 당 안팎에서 그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여기에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 재도전 견제라는 당내 분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 부정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간주하기보다 오히려 정치를 개인화한다고 비판했다. 올베라(Olvera)가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다양한 분파 세력들의 연합인 PRD를 카리스마를 통해 하나로 묶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를 개인화함으로써 PRD의 탈 제도화를 심화하고 시민사회로부터 PRD를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Olvera 2010, 91).

PRD 전문 연구자인 볼리바르 메사(Bolívar Meza)도 당의 카리스마 리더십 지배와 제도화 부족이 PRD 분열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 다음에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로 이어지는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십의 지배 그리고 당내 분파 간의 투쟁으로 인한 당내 제도화의 부족이 결국 당의 약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당 전체의 이익보다 리더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이 항상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각 리더나 각 분파는 당 전체의 비전보다 각각의 비전을 우선시 하고, 각각 자신의 사람이 주요 당직이나 선출직을 차지하는 것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기 때문이다”(Bolívar Meza 2014, 28-29).

PRD와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는 저서를 집필한 모사이지(Mossige)도 당내 제도화 부족과 그로 인한 일부 분파의 제도에 대한 불복종이 당 분열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지적한다.¹¹ 그는 PRD가 당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상으로는

11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당 분열의 책임을 대권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탈당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 후보를 두 번밖에 할 수 없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당 후보에서 배제하려는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파의 시도도 분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당내 제도화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발전된 제도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결정에 대해 당의 주요 분파 리더들이 그의 정당성을 종종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당내 분파 간의 관계가 갈등에 직면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회운동에 기반을 가진 분파와 대중적 지지를 받는 당의 ‘실직적’ 리더와 가까운 분파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중요한 순간에 당 공식 조직의 결정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점이 당 분열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Mossige 2013, 15).

그는 PRD가 운동과 정당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정당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데올로기적 합의와 제도화의 강화로 나아가야 하지만 PRD는 정당과 운동의 이중적 성격을 20년 이상 유지했고, 심지어 이들 둘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기보다 오히려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내부의 제도화와 관련된 이런 이질성으로 인해 PRD는 결국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Mossige 2013, 17).

PRD의 분열과 모레나의 부상

앞서 우리는 민주혁명당 분열의 잠재적 요인으로 태생적 이데올로기의 차이, 클리엔텔리즘에 기반을 둔 분파주의, 그리고 당내 제도화의 부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적 분열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PRD 내부 갈등의 심화와 사회운동으로서 모레나의 설립

PRD 내 다양한 분파들의 갈등은 2006년 대선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불복종 운동 전개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 불복종 운동은 나아가 국가의 제도적 안정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도적 틀을 중시하는 구좌파 계열의 분파들은 선거에 부정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데론 정부의 승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의회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선 패배를 불인정하면서 만든 ‘합법적 정부’(gobierno legítimo)에 참여 여부를 놓고 PRD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로부터 독립하자는 세력들과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함께 당을 사회운동으로 전환하자는 세력들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분파주의가 심화되고 제도화는 부족한 상황에서 2008년 3월 당대표를 비롯해 주와 시 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PRD의 전당대회는 선거부정 시비로 얼룩졌다. 당대표 선거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자신과 가까운 분파들의 연합인 연합좌파(Izquierda Unida, 이하 IU)의 후보 알레한드로 엔시나스(Alejandro Encinas)를 지원했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반대파이자 당내 최대, 둘째 규모의 분파인 NI와 ADN은 헤수스 오르테가를 밀었다. 또한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파는 2012년 대선 후보로 PRD 소속의 멕시코시 시장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를 추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파에서 차지했고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파들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 세력이라 할 수 있는 IU는 주로 IDN을 비롯해 사회운동에 기반을 둔 분파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2006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7년의 선거개혁, 2008년의 석유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칼데론 정부와의 어떤 협상도 거부했다. 반면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 파의 NI와 ADN과 같은 분파들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지면서 제도적 틀을 중시했다.

NI계가 주도하던 PRD에서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가 당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다. 그는 멕시코시 시장으로서 행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카리스마는 부족하고 대중적 호소력도 그들에 비해 떨어졌다. 따라서 당권을 장악한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파들은 그를 통해 기존의 카리스마 리더십과는 다른 새로운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했다. 2008년 이후 당을 장악한 NI계와 에브라르드는 카리스마적 지배를 배제한 당의 제도화를 추구했지만 당내 분파주의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Espinoza Toledo and Navarrete Vela 2013, 31).

NI계가 당권을 장악함에 따라 PRD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리더십은 약화되었고 당의 응집력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로페스오브라도르주의’(lopezobradorismo)는 사실상 사회운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당 외곽에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자신의 사회운동 조직인 모레나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Bedoya Santos and Colín Garcia 2016, 175).

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PRD는 2009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¹² NI계가 주도하던 PRD는 우파인 PAN당의 칼데론 정부와 제도적

12 2006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127석을 얻었던 PRD는 2009년 선거에서 72석을 얻어 55석을 잃었다(INE).

들 내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반 PRI 전선 형성을 위해 우파 정당인 PAN과의 전략적 연합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은 당내 온건파의 지지를 받았으나 PRD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당내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¹³ PAN과 PRD가 주도한 선거연합은 이 선거에서 12개 주 중 3개(푸에블라, 오아하카, 시날로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들 중 PT 소속의 오아하카 주지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주의 주지사는 좌파정당들의 후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볼리바르 메사는 PAN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PRD는 일부 주에서 득표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였지만 그로 인해 좌파정당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왔고, 사회변혁을 위한 대안 정치세력으로서의 입지도 약화되었으며, 대의를 상실한 채 단지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되었다고 주장한다(Bolívar Meza 2013, 65-66).

2011년 주지사 선거에서 PRD는 PAN과의 연합 없이 PT, Convergencia와 좌파동맹을 결성해 선거를 치를 것을 협의했지만 NI계가 주도하는 PRD 지도부는 멕시코주 선거에서 PAN과의 연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쟁 끝에 결국 PAN과의 연합 없이 선거를 치렀지만 결과는 역시 패배였다. 그로 인해 PRD 내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좌파 정체성을 포기하고라도 PAN과 연합해야 한다는 에브라르드를 중심으로 한 NI계 세력과, 좌파의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좌파의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중심 세력 간의 논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2012년 선거에서 NI계가 주도하는 PRD는 멕시코 시장 후보로 당원도 아닌 검찰 출신의 관료 미겔 앙헬 만세라(Miguel Ángel Mancera)를 선거경쟁력만 보고 PRD의 멕시코시 시장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그러한 정체성 상실의 모습을 보다 확연히 드러냈다. 만세라는 시장에 당선된 이후 PRD 내에서 애매모호한 성격의 ‘진보적 전위’(Vanguardia Progresista)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칼데론 정부의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이하 PEMEX) 개혁안에 대해 NI계 주도의 당 지도부가 지지 입장을 표명하자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당 지도부는 결정적으로 갈라서기 시작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PEMEX의

13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공식적으로 PAN과의 선거연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PT의 후보가 나온 오아하카 주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PAN과의 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PRD의 NI계뿐만 아니라 로페스 오브라도르계도 어떤 이데올로기적 원칙 없이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분적 민영화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연단을 점거하고 시민저항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PRD의 주류는 의회에서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러한 당내 주요 분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당시 PRD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당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의 정책적 노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2009년 하원의원 선거와 2010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PRD 후보보다 2006년 대선에서 PRD와 같은 선거연합에 속했던 PT나 MC의 후보를 지지했다.¹⁴

당의 주도권을 상실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PRD보다 자신의 정치조직을 구축하는데 전념했고, 그에 따라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자신의 사회운동 조직인 모레나(MORENA: Movimiento de Regeneración Nacional, 국가 재건 운동)를 설립했다. 하지만, 2012년 선거에서 PRD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의 PRD 탈당을 지연시켰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2012년 대선

NI 중심의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 파들이 주도하는 PRD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2012년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에 대한 대중의 여전히 높은 지지율 때문이었다. 사실 PRD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 재도전 시도로 인해 대선 후보 선정을 앞두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지지파와 에브라르드를 지지하는 NI계 사이에 당내 투쟁이 격화됨으로써 거의 당 분열 직전까지 갔다. 후보 재도전과 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제도화의 부족이 당을 분열 위기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 멕시코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PRD의 반 로페스 오브라도르파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2011년 9월까지 그들이 지원하는 에브라르드가 국민여론이나 당원 지지도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에 실시된 경선에서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승리함으로써 그는 다시

14 PT와 Convergencia는 2006년 대선에서 PRD와 선거연합인 진보확대전선(Frente Amplio Progresista, 이하 FAP)을 형성했었으나, 2009년 총선에서는 NI계가 주도하는 PRD와 거리를 두고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주도하는 석유방어운동(Movimiento en Defensa del Petróleo)과 선거연합을 모색했다. 이 선거연합의 이름은 ‘멕시코를 구하자’(Salvemos a México)였다. 이러한 선거연합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지지를 차별화했는데, 예를 들어 멕시코시와 타바스코 주에서는 전략적으로 PRD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PRD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다시 대선 후보가 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칼데론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자제하고, ‘정의와 정직’(justicia y honestidad)의 가치를 내걸고 국가 재건을 위해 ‘통합과 충심’(integración y cordialidad)을 강조했다. 기업인들 과도 접촉하면서 2006년 대선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온건한 입장을 보여주는 한편 전통적 지지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표 2. 2012년 멕시코 대선과 하원 비례대표 득표수 및 득표율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결과	연합정당	하원의원 비례대표 선거결과	
			각 당별	선거연합 합계
페냐 니에토	19,226,784 (38.20%)	PRI	15,960,086 (31.89%)	19,014,804 (37.99%)
		PVEM	3,054,718 (6.10%)	
로페스 오브라도르	15,896,999 (31.57%)	PRD	9,194,637 (18.37%)	13,489,620 (26.94%)
		PT	2,294,459 (4.58%)	
		MC	2,000,524 (3.99%)	
바스케스 모타	12,786,647 (25.68%)	PAN	12,960,875 (25.89%)	15,002,483 (29.96%)
		신동맹	2,041,608 (4.07%)	

자료: INE.

그러나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2년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득표율은 2006년 대선에 비해 약 4% 정도 감소했고, 1위 후보와의 차이도 7%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득표수에 있어서는 15,896,999표로 2006년 대선보다 약 100만 표를 더 받았다. 이는 좌파 후보로는 역대 최대 득표였다. 게다가 표 2에서 보듯이 이러한 득표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모레나가 소속된 PRD와 더불어 PT¹⁵, 시민운동(Movimiento Ciudadano, 이하 MC)¹⁶으로 구성된 선거연합인 진보운동(Movimiento Progresista, 이하

15 PT는 좌파민주주의를 내걸고 1990년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한때 신자유주의자 살리나스 데 코르타리 대통령과 동맹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는 계속해서 PRD와 동맹을 맺고 있다.

16 MC는 Convergencia의 바뀐 이름이다. Convergencia는 PRI에서 밀려난 각 지역 정치인들의 연합체이다. 2000년 대선부터 PRD와 선거연합을 맺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외연확대를 위해 사회민주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후보직의 시민개방을 내걸고 정당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환했다. 그에 따라 이름도 MC로 바꾸었다.

MP)이 하원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획득한 총 득표 수 13,489,620(26.94%)보다 241만 표(4.6%)정도 더 많은 것이었다.¹⁷

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그가 소속된 정당, 나아가 좌파 정치 연합세력 전체에 대한 지지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의 총 득표수 약 1,590만 표 중 241만 표 즉, 15%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개인적 카리스마, 그의 선거활동, 그의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RI의 페냐 니에토 후보의 대선 득표수가 PRI 중심 선거연합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와 거의 비슷하고, PAN의 바스케스 모타 후보의 경우는 대선 득표수가 PAN 중심 선거연합 정당들의 비례대표 득표수보다 222만 표 더 적은 것을 감안하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지지도가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보다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PRD나 그와 함께 선거연합을 실시한 정당의 후보들이 자신의 조직과 지지도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인기에 따른 후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 경쟁력이 여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⁸ 이러한 상황이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세 번째 대선에 대한 도전의지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의 탈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모레나의 정당 전환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PRD 탈당

2012년 대선 이후 당의 주도 세력인 NI의 당내 영향력은 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그에 반대하는 IDN, ADN, FNS의 일부, 그 외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 성향의 소규모 분파들의 연합인 ‘모두를 위한 애국민족전선’(Frente Nacional Patria para Todas y Todos: 이하 FNPT)등은 NI에 반대하는 동맹을 결성했다.

이 같은 당내 대립 분위기 속에서도 PRD는 당내 주류 세력인 NI와 FNS

17 PRD는 하원비례대표 후보를 좌파정당 연합 3당이 쿼터에 따라 나누어서 공동 후보를 낼 것을 주장했지만 PT와 MC는 각각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18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생명을 제품의 주기에 따라 도입기(2000년 멕시코 시장 선거까지), 발전기(2006년 대선까지), 성숙기(2012년 대선까지), 쇠퇴기(2012년 대선 이후)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그의 선거 경쟁력이 2012년 대선 이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edoya Santos and Colín García 2016). 이 같은 분석은 일면 타당하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멕시코인들의 반미감정 증가로 가장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주류의 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 PRD의 상하원 원내대표도 각각 NI계와 FNS계에서 각각 차지했다.¹⁹ IDN과 그의 연합세력들은 당내 주도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당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의회 내에서의 영향력은 포기하고 대신 당 사무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의회 내 PRD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원은 PRD보다 오히려 PT와 MC에 더 많았다.

결국 2006년 대선 패배 이후 시작된 PRD 내부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NI 간의 갈등은 2012년 대선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으로 막을 내렸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은 PRD의 대표인 헤수스 삼브라노(NI계의 리더 중 한 명)가 2012년 대선의 선거 부정을 문제 삼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무시하고 PRI 후보인 페냐 니에토의 선거 승리를 인정하고, 이어서 PRD의 하원 원내대표가 페냐 니에토 정부의 개혁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루어졌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NI계가 주도하는 PRD 지도부가 페냐 니에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선 승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주도권을 상실한 PRD에서 탈당하는 명분이 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그의 탈당 명분을 이러한 정책적 노선 차이에서 찾고 있지만 2012년 대선까지 그는 그러한 정책적 노선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이제 새로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자 결국 탈당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NI의 대표적 리더인 헤수스 오르테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의 탈당은 PRD가 ‘정치적 조현병’에서 벗어나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행동을 가진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의 탈당을 부추기기도 했다(*Libertad Oaxaca*, 9 de septiembre, 2012).

결국 2012년 9월 9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시 소칼로에서 시민사회 운동인 모레나를 정당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모레나의 정당 전환 발표로 인해 PRD는 1989년 창당 이후 최초의 대 분열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대선에서 PRD와 함께 선거연합(MP)을 결성했던 PT와 MC는 모레나를 그들의 정당으로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그와 별도로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그들과의 선거연합은 유지하

19 하원 내 각종 위원회의 PRD 몫 위원장은 계파 간 분배를 통해 NI가 4개, IDN이 3개, ADN이 2개, 전 멕시코시 시장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의 분파가 1개, FNS가 1개를 차지했다.

고자 했지만 모레나를 자신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고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개인화된 정당으로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모레나는 당내 제도화보다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대중적 호소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당으로 탄생했다. 모레나는 그 후 2014년 정당으로 공식 등록하고, 2015년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모레나당 설립 초기에 그의 세력은 미약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제외한 PRD의 주요 분파들(NI, ADN, IDN, FNS,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그룹과 미겔 앙헬 만세라 그룹)은 대부분 당에 남았다. 특히 당내 세 번째 규모의 분파로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 계로 분류되는 IDN조차도 PRD에 잔류를 결정했다. 심지어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가장 가까운 UNyR과 RUNI²⁰와 같은 소규모 분파들조차 당에 남았다. 이들은 당에 남아 PRD와 PT, MC, 모레나 네 좌파정당의 연합을 추진했다. NI의 일방적 지배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계라고 할 수도 없는 ADN도 여론보다 소속된 분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클리엔텔리즘 정당으로서 PRD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당내 부패적결과 제도 공고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2015년과 2018년 선거에서 PRD와 PT, MC, 모레나 네 좌파정당의 연합을 제안했다.

당내의 이러한 좌파연합 제안에도 불구하고 NI가 주도하는 PRD는 2015년 선거에서 모레나와의 연합을 거부했다. 물론 PRD 내부에는 아직도 여전히 모레나와의 연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NI계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으로 PRD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주도하는 ‘급진적이고 갈등적인 좌파’에서 벗어나 보다 ‘근대화된 좌파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Milenio*, 24 de noviembre, 2012). 그러한 주장에 대해 좌파연합을 제안했던 ADN은 물론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계로 분류되던 IDN이나 UNyR도 더 이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선거에서 신생정당 모레나는 좌파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 RUNI(Red por la Unidad Nacional de las Izquierdas: 좌파 민족 연합단)는 2009년 알레한드라 바랄레스(Alejandra Barrales)가 설립한 분파이다. 주로 멕시코시 일부 구(delegaciones)의 PRD 지지자들을 조직 기반으로 하고 있다.

PRD의 쇠퇴와 모레나의 부상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 후 당의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PRD는 여전히 당의 제도화를 이룰 수 없었다.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조직구조도 형성할 수 없었다. 당은 여전히 다양한 클리엔텔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 리더들의 정치적 연합체로서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응집력이 부족했다. 이는 고전적 의미의 정당이라기보다 개인과 그룹의 정치적 공동전선에 불과한 것이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 이후에도 PRD에는 여전히 개인과 그룹의 이익과 야망만이 존재할 뿐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효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했다. 제도화의 부족은 분파들의 갈등을 지속시켰다. 당은 제도에 의해 지배되기보다 분파 리더들의 협상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갈등과 분열이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는 과거처럼 당의 갈등을 해소할 카리스마 리더십도 부재했다.

페냐 니에토 정부가 추진하고 PRD의 지도부가 지지하는 다양한 개방과 개혁 정책에 대해 PRD 내부에 여전히 반대의견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가 주도하는 PRD의 지도부는 페냐 니에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비판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로페스 오브라도르 시절 PRD의 급진적이고 갈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PRD를 온건좌파, 중도좌파로서 자리 매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PRD에 소속된 다양한 분파들과의 합의 도출 없이 NI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당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그로 인해 PRD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상실과 지지율 감소를 우려한 다양한 분파(ADN, IDN, FNS, RUNI, 에브라르드 그룹)의 리더들은 그러한 당의 방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 이후에도 PRD는 여전히 내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함께 PRD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쿠아우테묵 카르테나스도 여당 PRI와의 협력 노선에 반대해 2014년 PRD를 탈당했다. 2014년에는 또한 PRD가 통치하는 게레로 주의 이구알라 시에서 발생한 학생 실종사건으로 인해 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PRD 소속이었던 게레로 주 주지사와 이구알라 시 시장이 모두 사임했다. 2015년에는 NI계가 한 때 대선 후보로 밀었던 전 멕시코시 시장 에브라르드 또한 PRD를 탈당했다. 그로 인해 PRD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마저 상실했다.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과 또 다른 좌파정당 모레나의 등장으로 PRD는 재창조보다 쇠퇴의 위협에 직면했다. PRD는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될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구했던 당의 제도화

도 공고히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당 내부 분파의 뿌리 깊은 대립만이 존재하는 분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도적 좌파, 온건좌파, 시스템에 충실한 좌파를 추구하는 현 PRD는 이제 과거 PRI 해계모니 지배 시절의 제도 내 군소 좌파정당으로서 PPS나 PSM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 PRD의 현 지도부를 형성하는 NI 분파의 리더들이 대부분 이러한 정당 출신들이다.

반면 모레나는 신생정당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멕시코에서 신생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정 선거법에 의거해 신생 정당은 정당 등록을 위해 멕시코시를 포함한 32개 주 중 최소 20개 주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지구당회의(asamblea estatal)를 조직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도 총 유권자의 0.26%인 219,608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친 로페스 오브라도르파들이 여전히 PRD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레나는 소노라와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주를 제외한 30개 주에서 최소 당원을 초과하는 지구당회의를 조직했으며,²¹ 전체 당원 수도 짧은 기간에 50만 명 이상을 확보해 기준을 어렵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비록 모레나가 정당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으로서 배타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성격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에 따라 모레나는 정당 전환 이후에도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계속 이어갔다. 모레나는 의제 설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주민, 농민, 노동자, 전문가 그룹, 청년, 여성, 노년, 상인, 자영농, 기업인 등 국가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당으로서 모레나의 목표는 선거에서의 승리와 그를 통해 페냐 니에토 정부가 실현한 모든 개혁들(특히 에너지부분 민영화)을 폐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Bolívar Meza 2017, 476-477).

모레나는 2015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신생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록 앞서 살펴본 대로 의석수에서는 35석으로 PRI, PAN, PRD, PVEM에 이어 다섯 번째이지만, 전체 득표율은 목표했던 6.5%를 넘어 8.4%에 달함으로써 네 번째 정당이 되었다. PRD와 득표율 차이도 불과 2.5%에 불과했다. 17개 주에서는 PRD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했다(INE). 1988년 3당 체제 확립 이후

21 모레나가 각 주별로 지구당회의를 조직한 당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원 수가 4,000명을 넘긴 주만) 멕시코시 11,169명, 멕시코 주 7,979명, 오아하카 6,691명, 이달고 6,114명, 타바스코 5,802명, 베라크루스 5,225명, 사카테카스 4,816명, 할리스코 4,202명, 과나후아토 4,211명, 푸에블라 4,090명, 모렐로스 4,020명 등이다(Bolívar Meza 2017, 476).

지금까지 선거에서 주요 3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7%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이나 자금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신당이 그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레나가 2014년 정당으로 등록한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이며, 게다가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멕시코의 정당구조에서 이런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일이다.²² 물론 멕시코에서 신생 정당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정치구도가 겹보기에 좌파, 중도파, 우파의 각각 중요한 세 개의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가 설 땅이 실제로 많지 않았다. 따라서 모레나의 성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세 번째 대선 도전 가도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

모레나가 다른 군소정당과 다른 점은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스피노사와 나바레테가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정당의 경우 대선에서 30%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카르테나스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spinoza Toledo and Navarrete Vela 2016, 99). PRD가 2006년과 2012년 선거에서 3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빠진 PRD는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으며, 신생정당 모레나가 2015년 선거에서 거둔 성과도 결국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존재로 인해 가능했다.

모레나는 2015년 하원의원 선거 후 2015년 11월에 실시된 제2차 당 대회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만장일치로 당대표로 선출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당대표로서 절대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2018년 대선 후보로서의 위치도 공고히 했다. 사실상 단일 대선 후보로서 당의 주요 인사가 모두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인물들로 채워짐에 따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과거 PRD에서와 같이 다양한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모레나는 사실상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개인 정당이고 따라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모레나에서 그의 정치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채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의 결정 과정이 한 명의 카리스마 지도자에 집중되고,

22 특히 2014년에 개정된 선거법은 신생정당의 생존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신생정당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의 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2%였다.

소수의 지도부의 입장이 다수 당원들의 의사를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레나는 정관상 당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도지배적 성격을 보여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지위를 위협하는 당내 분파주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수로 구성된 당 지도부가 당 활동의 모든 권한과 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내 대부분의 결정 과정은 만장일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당이 응집력 있는 조직으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닌 규정과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제도적 리더십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모레나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Bolívar Meza 2017, 484-486).²³

결론

PRI의 헤게모니 지배시기에 멕시코 좌파정당의 존재는 매우 미약했다. 좌파의 대의와 지지기반을 PRI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민족주의 성향의 PRI 탈당파들이 기존 좌파정당들과 연합해 PRD를 설립한 후 좌파정당은 멕시코 3당 체제의 당당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PRD는 최근 분열 과정을 통해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 PRD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당내 이데올로기 차이에서 기인한다. PRD는 설립 초기에 민중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PRI 탈당파와 좌파 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좌파정당 출신들로 크게 나누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이데올로기 차이는 클리엔텔리즘에 기반을 둔 파벌 간의 이권싸움에 비하면 큰 문제도 아니었다. PRD는 외연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좌파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점차 PRI와 같은 포괄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분파의 리더 중심으로

23 논문 제출을 앞둔 지난 7월 1일 대선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53%의 지지로 22%를 획득한 2위 PAN당의 리카르도 아나야(Ricardo Anaya)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1988년 대선에서 PRI의 헤게모니 지배가 무너지고 3당 체제가 성립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50% 이상, 즉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한 대통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처음이다. 게다가 하원의원 선거에서 모레나는 2015년 선거보다 156석이 증가한 191석을,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55석을 차지했다. 게다가 모레나 중심의 선거연합이 획득한 총 의석수는 하원 307석(총 500석의 61%), 상원 68석(총 128석의 53%)으로 과반수를 넘어선 것은 물론 하원에서는 심지어 개헌선인 3분의 2에 근접할 정도이다. 반면 PRD는 2015년 선거에 비해 하원에서 35석이 줄어든 21석, 상원에서 15석이 줄어든 8석을 획득했으며, 지지율도 5% 수준으로 사실상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INE).

정치적 이권 투쟁을 벌이는 클리엔텔리즘 정당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사실 분파의 이권을 추구하는 클리엔텔리즘은 멕시코의 어느 정당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분파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틀에 의해 조정된다. 공고화된 제도가 있다면 이런 분파적 이익 추구에도 불구하고 당은 하나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PRD는 PRI나 PAN에 비해 내부적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PRD는 설립 초기부터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에 비해 제도가 공고화되지 못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당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의 제도적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카리스마 리더가 대선에서 실패하고도 대선의 꿈을 버리지 않고, 당은 그러한 카리스마 리더의 대중적 지지도를 인정하지 않고 각 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고자 할 때 당의 분열은 필연적이다.

PRD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 이후 제도에 기반을 둔 근대적 좌파정당을 추구했다. 그러나 당내 다양한 분파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여전히 당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탈당으로 기대했던 당의 제도화를 공고히 하지 못했으며, 제도적 정당으로서 정부 여당과의 비판적 협조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일반 대중들을 실망시켰다. 결과적으로 PRD는 오직 클리엔텔리즘에 기반을 둔 조직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정치단체로서의 정당이 되었다. 반면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설립한 사회운동 기반의 모레나는 전국 정당으로 등록에 성공하고 선거에서도 신생정당으로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PRD의 쇠퇴와 모레나의 부상은 멕시코 3당 지배 정당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멕시코 좌파정당의 지형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Bedoya Santos, José Trinidad and Araceli Colín García(2016), “El ciclo de vida del producto político: Estudio de cas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como candidato a la presidencia de México,” *Espacios Públicos*, No. 45, enero-abril, pp. 163-181.
- Bolívar Meza, Rosendo(2013), “Los frentes políticos-electorales de izquierda en México(2006-2012),” *Estudios Políticos*, No. 28, enero-abril, pp. 51-79.
- _____(2014), “El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en crisis: Entre la dirigencia de la corriente Nueva Izquierda y la salida de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Estudios Políticos*, No. 33, septiembre-diciembre, pp. 27-50.
- _____(2017), “Movimiento de Regeneración Nacional: Democracia interna y tendencias oligárquicas,” *Foro Internacional*, Vol. LVII, No. 2, abril-junio, pp. 460-489.
- Borjas Benavente, Adriana(2003),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Estructura, organización interna y desempeño público 1989-2003*, México: Gernika.
- Cantú, Francisco and Scott Desposato(2012), “The New Federalism of Mexico’s Party System,”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Vol. 4, No. 2, pp. 3-38.
- Encuestas(2014), “Acecha Morena en el DF,” *Un Blog de Grupo Reforma*, 30 de julio, <http://gruporeforma-blogs.com/encuestas/?p=4848>
- Espinoza Toledo, Ricardo and Juan Pablo Navarrete Vela(2013), “La evolución del liderazgo en el PRD, 1989-2012,” *POLIS*, Vol. 9, No. 2, pp. 17-48.
- _____(2016), “MORENA en la reconfiguración del sistema de partidos en México,” *Estudios Políticos*, No. 37, enero-abril, pp. 81-109.
- García Ponce, Jorge Ignacio(2005), “PRD: Ficción y contradicciones. Los dilemas de un partido débil o el sueño que no fue,” *El Cotidiano*, No. 130, marzo-abril, pp. 59-68.
- Instituto Nacional Electoral(INE), <http://www.ine.mx/>
- Kerevel, Yann P.(2014), “Loyalty and Disloyalty in the Mexican Party System,”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56, No. 3, Fall, pp. 93-117.
- Klesner, Joseph L.(2005), “Electoral Competition and the New Party System in Mexico,”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7, No. 2, July, pp. 103-142.
- Libertad Oaxaca(2012), “Si se va AMLO, ‘se acabará la esquizofrenia’,” 9 de septiembre, <https://libertad-oaxaca.info/si-se-va-AMLO-se-acabara-la-esquizofrenia/>
- Martínez Gonzalez, Victor Hugo(2005), *Fisiones y fusiones, divorcios y reconciliaciones: La dirigencia del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RD) 1989-2004*, México: Plaza y Valdes.
- Milenio(2012), “Sugieren mantener una alianza con el partido de López Obrador,” *Milenio*, 24 de noviembre, <http://www.pressreader.com/mexico/milenio/20121124/281711201938576>

- Mossige, Dag(2013), *Mexico's Left. The Paradox of the PRD*, Colorado, USA: FirstForumPress.
- Olvera, Alberto J.(2010), "The Elus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in Mexico,"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5, Special Issue, pp. 79-107.
- Político.mx(2017), "Reelección inicia en 2018, ¿cómo funcionará?," 15 de junio, <https://politico.mx/central-electoral/elecciones-2018/reelección-inicia-en-2018-cómo-funcionará/>
- Rascón, Marco(2012), "La izquierda necesaria," *NEXOS*, 1 de octubre, <https://www.nexos.com.mx/?p=15039>
- Roman, Richard and Edur Velasco Arregui(2013), "Neoliberal Authoritarianism,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the Mexican Left," Jeffery R. Webber and Barry Carr(eds.), *The New Latin American Left. Cracks in the Empire*, Maryland, USA: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pp. 277-298.
- Rosas, Guillermo(2005), "The Ideological Organization of Latin American Legislative Parties: An Empirical Analysis of Elite Policy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8, No. 7, pp. 824-849.

Article Received: 2018. 07. 17.
Revised: 2018. 08. 14.
Accepted: 2018. 08. 18.